강점기 조선정치의 문학적 이해 Ⅱ: 이상(李箱)과 서인식의 경우*

박 종 성 |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한국정치연구에서 강점기의 변방성은 여전히 농후하다. 정치학의 접근 빈곤은 논의의 인프라 구축도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과학 밖의 강점기 논의를 종합해 보더라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현대사와 왕조사 사이에 끼여있는 역사의 회색(灰色) 지대로 당대의 인식은 그래서 쉽지 않다. 1930년대의 체계적 인식과 그 입체적 재현은 특히 어렵다. 불안과 소외, 압박과 공포로 점철되는 이 시기는 폭력의 포위 속에서 주눅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던 시기였다. 학문이 빈곤했다면 좀체 끝날 것 같지 않던 식민의 역사를 살아낸 사람들의 생각은 다시 치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역사의 숨은 그림 찾기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끝내 학문이 기대야 할 신뢰의 자원으로도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같은 믿음의 기반을 문학에서 찾는다. 시대의 투쟁을 선도하며 정치 현실의 실질적 변화마저 이끌진 못하였으되 꼼짝없이 당대를 버텨내야만 했던 인간들의 앉아 있던 자리를 다시 살피고 주위에 남겨 놓은 생각의 자락들을 맞춰보는 기억의 문학과 재건의 정치학을 얘기하려는 것이다. 이 상과 서인식은 당대의 시대정신이 퇴폐의 늪 속에서 배양되었다고 자신들 작품 어디서도 굳이 힘주어 말하지 않는다. 피 흘리기 위해 혁명을 기획하지는 않듯, 억압의 세월이 권태를 낳고 애수의 나날이 타락이라도 하여보라고 대신 우울의 빗물로 식민의 대지를 적시던 연유(緣由)를 말한다. 그리하여 날개라도 달아 제국의 반도를 떠돌고 죽음보다 더 깊이 절망하면서 도피의 구멍을 찾는 게 더 없는 정치의 방략이었음을 알아차리도록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꿈꾸었고 폭력의 등에 업혀 폭력의 심장을 향해 거꾸로 비수라도 꽂을 철학의 방법까지 찾아 헤매던 30년대 말 고단한 지성사를 작가와 함께 누비는 일이야말로 오늘도 여전한 지성의 황폐를 이겨내는 또 다른 길일 수 있음을 변명해 보려는 것이다.

---

*"강점기 조선정치의 문학적 이해: 염상섭의 『광분』과 관련하여"는 『한국정치연구』 제7권(1997)에 수록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I. 강점기 다시 읽기: 정치의 빈곤, 문학의 풍요

한국정치의 연구현장에서 '강점기'의 위상은 여전히 모호하다. 연구 부피가 제한적이란 사실 외에도 당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의 학문적 합의도 정치학 내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열정으로 무장한 몇몇 연구자들의 간헐적 언급과 천착만이 확인될 뿐이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보편의 얼개와 적실성 있는 이론틀로 이 시기를 비춰보거나 생산적으로 상상해 보기는 그래서 아직도 어렵다.

감추고 싶은 역사였거나 기억 너머 폐기하고픈 얼룩진 공백일 수 있었다. 온몸으로 밀쳐 내지 못한 정치적 회한이 밀물처럼 몰려 와 한껏 폭력적일 수 없었던 겨레의 무능 마저 기억의 좌판(坐板) 곁에 습관처럼 들러붙는 나날들이기도 했다. 역사의 주문을 감당하지 못한 정치적 수줍음을 이제라도 '못된' 버릇인 양 회상하게 만드는 세월의 숨은 그림은 아직 저 광장 한복판에 흔쾌히 펼쳐지지 않았다. 수많은 핑계와 덧없는 알리바이들만이 그 주변을 맴돌며 도피와 잠행의 계략을 꾸미는 동안 반도는 동강나고 동포는 미움과 갈등의 무리들로 쪼개지고 있었다.

역사 속 상처는 덧날대로 덧나 치유와 극복이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진물 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일이었다. 아니면 아예 진지한 다가서기로 틈만 나면 서른 여섯 해 상상으로 일관할 일은 모두의 과업 아니었을까. 그 사이, 경제학은 식민지 근대화론과 수탈론으로 서로 맞서며 긴장의 진용을 갖추었고 역사학은 독립운동사와 사회주의 혁명운동사의 학문 전사(戰士)들로 연구의 근력(筋力)을 더했다. 이렇게 축적, 진행된 강점기 연구는 사실 그들의 아카이브 공간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동원하는 개체적 감동과 흥분이 또 다른 비판적 사고의 토대를 이루는지 아닌지는 그만두더라도 말이다.

문제는 식민지체제의 성격과 하다 못해 '시대정신 *Zeitgeist*'이라고 다소 거창하게 이름 붙일 당대의 (사상틀이라 불러도 좋을) 정신구조로 몰린다. 또한 이를 어떻게 평균화할 것인지 하는 쪽으로도 새삼 쏠린다(정해광 2004, 78). 따라서 강점기 역사를 독자적 '시대사'로 떼어 내고자 할 때 세부 시기와 논의 항목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 맥을 이을 것인지도 아울러 살펴볼 일이다. 다시 새삼스레 묻기로 하자. 강점기체제는 한국사, 특히 한국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그 성격의 평균값은 무엇으로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필자는 이에 관한 논의의 한 실마리를 문학에서 찾는다(박종성 1997; 2004). 그것은 역사학과 경제학이 좀체 다루지 않는 미시적 인간 관계를 아우르며 논의의 구체성을 쉽게 담보한다는 점에서 한결 매력적이다. 아울러 문학은 즉발(卽發)적 감각의 소통망을 거침으로써 이해의 입체성을 더하고 상상의 경로 역시 한층 강한 현장(현실)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덜 우회적이다. 이는 자못 난삽하거나 현학적인 거품을 빼 주며 대신 평이하고 안온한 접근의 길목을 제공하여 '그때 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학보다 가깝고 경제학보다 쉽게 이야기해준다.

당대의 아픔을 금세 치유하거나 벗어날 방도까지 일러주진 못하여도 가장 처절하게 현장의 모습을 전달 · 표현함으로써 문학은 학문이 감당 못하는 낭만의 도구성 마저 일깨워준다. 일례로 식민지 조선이 '수탈 대상' 이었는지 아니면 종속적 발전과 후발 근대화의 '빈터' 였는지를 둘러싼 논쟁만으로는 '빼앗긴 들' 이 치러야 했던 핍박의 모양을 분명히 알 수 없다. 게다가 고문 현장의 핏자국이 어떤 느낌의 선홍(鮮紅)빛이었는지는 더더욱 헤아리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온갖 피폐와 박탈의 나날 속에서 '울부짖던 산하' 의 눈물은 이 땅의 역사학이 틈만 나면 부르짖는 민족주의의 관념적 온도계만으로는 잴 수 없는 절절한 온기(溫氣)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학문세계의 공허함을 메우는데 정치학이 기여한 건 무엇일까. 그 또한 무망하기로는 마찬가지였다. 과거에 천착하느니 오늘의 권력 향배(向背)에 촉각을 돋우며 누가 앞날의 승자일 것인지 그것을 맞추는 것이 숨은 정력 퍼붓기에 더 매력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과학' 을 빌려 와도 그것 하나 옳게 적중시키지 못하는 분석의 화살은 덧없는 현실 곁에서 같이 흔들리 있었다. 그것이 정파를 달리하는 경쟁자들 사이의 선거였든 아니면 죽기살기로 들러붙어 싸워야 했던 나라 사이의 전쟁이었든 정치학이 승리를 담보하고 평화를 정착시켰다는 신화는 아직 현실로 나타난 적이 없다.

'현재로서의 역사' 그 자체에 치열하게 고민한다는 핑계가 흘러간 세월의 상처를 외면해도 좋다는 면죄부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때로 한없이 부끄러웠고 피할 길 없는 역사의 책무 앞에서 면피의 공간이나마 나타나 주길 고대하고 있었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자학일까.

그러나 정치학 마저 왜 강점기 천착에 소홀했는지까지 살피려는 게 막상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게다가 그다지도 외면하였던 '핍박의 시대' 를 어쩌자고 문학은 흐르고 넘치도록 풍요로운 집필의 강물 속으로 역사를 휘돌리고 되새기기 이르렀

는지 따져보고자 차비한 일도 아니었다. 차라리 저들의 노력을 통해 당대를 되 비쳐 보고 그들의 눈으로 우리의 방기를 질책해 보는 일이 의미 있는 일 아닐까 따지려 했다.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 빼고는 아예 말하지 못할 시기가 당대임을 강점기 문학연구자들은 불만의 입버릇인 양 되뇐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정형화된 문학사상이 있기에 그것이 주변 학문의 연구 지체를 용서하거나 덩달아 면제해줄 만한 의존적 대피소 노릇을 해야 한다는 데도 쉽게 동의하긴 어렵다. 그것은 차라리 주위의 처연함과 지적 빈곤을 한결 도드라지게 진작시키는 풍요의 꼭지점으로 빛나고 있다.

문학으로 역사를 보되 그 곁에서 당대 정치의 빈곤을 재확인하는 일은 향후 정치학적 재생산의 단서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되레 긴요했다. '빼앗긴 들판'에서 '울부짖던 저 산하'가 한스럽게 남긴 핏물과 눈물 자국이야 정치학의 기본 관심사치곤 너무나 원색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것 하나 제대로 되돌아보지 못한 채 국가와 민족의 오늘을 걱정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지식의 책무 운운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위선이며 허무한 과장임을 왜 모를 일이겠는가.

삼십육년 세월 전부의 평균값이나 그 성격의 진수를 뽑아내기가 어려웠다면 어느 특정 시기로나마 관심의 촉수는 집중시켰어야 했으리라. 가장 처절했거나 혹은 피눈물조차 흘리지 못할 만큼 기막힌 '울컥거림'으로 진저리치던 핍박의 시간을 들춰내 그 정수리라도 파헤쳐 볼일이었다. 독립과 해방은 이제 영영 글러버린 꿈으로 떠돌던 암묵의 시기. 자유의 '벅참'이란 것이 그렇게 몰래 도둑(함석헌 1983, 268) 처럼 기어들는지는 진정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무한공포의 탄식과 폭력의 그늘 아래 아연해 하던 절박의 세월. 저들을 상대로 싸우느니 우선 민족을 개조하고 아(我)의 무능과 피(彼)의 위용을 견주어 삶의 주눅부터 확인하고 보자는 압도적 패배주의의 터널 혹은 그 속에서 일관된 시간의 압박.

하필 '1930년대'는 그렇게 벼랑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질식의 세월인 양 이어지고 있었다. 끝나지 않을 절명의 세월로 오인된 치욕의 역사도 도리어 낭만적 희화화의 대상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건 그렇다면 인문학적 여유의 발로였을까. 그게 아니었다면 역설의 발악과 희극적 반어(反語)로 뭉개진 언어의 끈질긴 축적이었을까.

사회과학은 견주지도 못할 작품 부피는 그만 두고라도 이론의 가늠자로는 조준조차 버거운 언어의 거대한 덩어리로 소위 30년대 조선문학을 이끈 시대정신의 골

자란 뭐였을까. '불안'이라 말하는 이(이은애 1999, 341)도 있었고 막다른 골목길 섹스처럼, 아니 정조(貞操)와는 관계없는 아득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었다(한민주 2002). 궁핍과 곤고(困苦)의 나날을 헤쳐나가며 터득한 사회주의의 텃밭(이상경 1984) 이기도 했고 늘 그랬듯 몸이라도 팔지 않으면 끼니거리 해결할 길 없는 막장의 어두움도 태양처럼 빛나 오르던 시절(박종성 1996, 184-190) 이었다. '굶기'를 밥먹듯, '울기'를 물 마시듯 해대며 절규라고 해 보았자 아무 데서도 들리지 않던 절명의 세월이었다. 하여 부정(否定)과 소극, 폄하와 자학이란 그만그만한 형용사들을 동원해 보았자 흔쾌히 끊지 못할 관계의 어정쩡함은 도리어 운명이었고 부끄럽기만 한 세월의 퇴적물은 내다버릴 공간조차 마땅찮았다.

그러나 당대가 지니는 문학적 매력은 이 땅의 연구 현장에서 처절하다. 한 시기에 관한 집중적 관심과 그것도 상당한 연구 인구의 '최근성'마저 확보하고 있는[1] 30년대 문학 분석은 그만큼 강점기 연구의 좋은 표본이자 학제간 연구의 준거로 떠오른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문학과 문학연구가 정치 연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영토의 경계는 어디까지 넓혀질 수 있는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필자는 두 사람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읽는다. 숨 막힐 것 같은 정치공간과 어쩌지 못할 생활세계에서 하는 수 없이 버티었던 존재양식의 문제도 그러했으려니와 그래도 살아야 한다며 때로 자조(自嘲)하거나 세월의 부박(浮薄)을 노래함은 추상적 이론을 거친 해부보다 한결 즉각적이다. 이상의 문학사상과 서인식의 역사철학(혹은 문학적 신념) 또한 엄격히 따지자면 사변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다. 진지함이 지나쳐 한사코 이들을 난삽하게 다루려는 이들도 있는 게 오늘의 풍토다.

하지만 당대를 살며 헤치며 이따금 끓며 넘치며 토해 낸 그들의 문학 언어가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전하는 묵직함의 등가성이란 한층 새삼스럽다. 식어 가는 독립 의지와 열정 저편으로 현실의 개선이란 생각하기도 어렵게 무능의 조건들은 켜

1) 30년대 한국문학에 관한 본격적 관심이 왜 최근에 와서야 발화(發火)하게 되는지는 별도의 주제일 것이다. 다음 연구들은 이를 위한 논의의 좋은 발판이 된다: 김양선 2003; 상허문학회 1998; 한국문학연구회 1993; 이화진 2001; 이강언 2003; 채만묵 2000; 김예림 2004; 조정래 외 1999; 문학과비평연구회 1999; 곽승미 2003; 구수경 2003; 이명찬 2000; 차혜영 2004; 박선애 2004; 이정옥 2000.

로 쌓여가고 있었다.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모두가 한 곡조인 애수의 멜로디 속에서 되돌아가지 못할 옛날의 광영만 매만지고 있기도 지겨운 노릇이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그들을 관통하는 '퇴폐'의 정치적 의미는 각별해 진다.

고스란히 꿈꾸다 분연히 일어 나 뛰어봐도 다시 이룩할 과업조차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자위 *masturbation*' 또한 부질없는 일이었다. 싸워서 다시는 못 찾을 망정 정조 잃은 누이의 속살로 빼앗긴 조국 강토와 능욕의 세월을 헤아리는 역사 소추(訴追)도 지루한 일상을 빠져나가는 전략치고는 두 번 세 번 창피하기만 한 노릇이었다. 그리하여 거역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마음 바꿨고 그래도 하는 수 없이 솟구치는 치욕의 감각이 베갯머리를 방해할 때 부산스런 감정과 지친 육신이나마 다시 담그고 위로해 볼 도피처도 돌아보면 '퇴폐'란 이름의 연못 뿐 다른 데는 없었다. 핑계 거리도 마련치 않은 채 그 곁에서 솔직히 드러나는 속내에는 어느덧 오갈 데 없이 외로운 정치적 영혼과 안주의 상념들만 넘쳐나고 있었다.

II. 이상(李箱): 혁명의 박제, 무기력의 화석

1. 좌절과 침잠

고립과 단절에서 오는 의식의 '절절함'을 단아한 의지만으로 이겨내기란 강점기 문인이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존재의 초월과 인문학적 극복이 모두 시의 형식을 거치는 것만도 아니었고 암흑의 터널을 걷는 법도 온통 거룩하기만 했던 게 아니다. 갈 데까지 다간 자들의 자기 모멸과 위안 부재에서 오는 절망에 질려 때로는 바위 밑 파충류 마냥 버둥대며 사는 나날도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았는가.

자존(自尊)도 희망이 있을 때나 하는 법이었다. 남도 아닌 자신의 폐부로 경멸감이 조여들 때 피할 길도 나갈 문도 없이 깨인 자들의 고민이란 그렇게 혹독한 일이었다. 시작은 있으되 끝이 없는 형극의 길은 이들을 두고 이르는 말이었다. 지독한 역설로 차라리 두려움조차 잃어버린 자들의 최고 공포란 바로 희망 따위 단어일랑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나라 없고 모국어 잃고 게다가 용기까지 사라져버린 피폐한 나날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죽었다'의 과거시제형 반어

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사라져 버리고픈' 버거움과 수줍음의 도치형 합성어일 뿐이었다. 그저 숨이나 쉬고 때되면 밥 먹으며 돈 생기면 술이나 마셔야 하는, 그런

> 무기력, 방임, 판단유보, 침묵, 게으름, 폭음, 도박, 마약, 황음(荒淫), 질병, 경멸, 망각, 고립, 소외, 부정(否定), 단절, ….

대상을 관조하고 감각으로 어루만지되 막상 그리로 뛰어들어 밀치든 깨트리든 혹은 제 자신이 깨져버리든 어쩌지 못하기로는 '이상(李箱)'도 만해나 백석과 마찬가지였다. 역사의 기류와 문화의 냄새는 같았을망정 그러나 그 속에서 헤매고 떠도는 방식은 한참이나 달랐다. 부끄러움의 인식이나 극복 방법부터 감정의 토로와 논리적 추스름에 이르기까지 그들 각자가 갖는 표현의 영토는 다 색달랐다. 특히 슬픔의 '드러냄'에서는 더더욱.

숱하게들 논의한 그의 문학세계를 동어 반복할 의사나 능력도 필자에겐 없다. 다만 압축과 도약의 방식으로 그를 다시 읽어보자는 뜻은 그의 글이 갖는 의미의 파급 효과가 시대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가볼 수 없고 이를 길 없는 '당대'의 체득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감각의 통로와 무의식적 인입(引入) 채널을 거치며 내면화될 밖에 다른 길은 없지 않겠는가.

궁금하든 염려되든 아니면 갖고플 만큼 탐이라도 날 것이었으면 덤벼들어 움켜잡을 일이었다. 그게 어려웠다면 손이라도 부여잡거나 끌어안고 뺨이라도 비벼댈 일 아니었을까. 대체 이상에게 욕망이 욕망으로만 남고 접근과 소유로 이어지지 않는 무한 단절의 반복 현상은 직접 탐닉과 어디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까. 관조의 쾌락? 마스터베이션의 즐거움? 오매불망 그리워해 봐야 연기처럼 사라질 제행무상(諸行無常)? 참는 게 행복의 극치란 전도된 계산? 대체 그건 뭐였을까.

다음 시는 이렇게 답답하고 덧없는 심사를 잘 농축한다. 마치 영화 속의 영화나 액자 속 액자처럼 시속에 시를 잡아당겨 보도록 유인하는 그의 전략은 단순한 감흥의 차원을 넘어선다. 따지고 보면 반드시 실제 돌에 관한 회상과 허무의 반전만이 아니라 시속의 시에서는 '이루지 못할' 인연의 안타까움이나 아련한 다짐의 정치심리가 잘 묻어난다. 어찌하여 인연이 안 되었던 것인지, 아니 그것이 '주체'의 '용기 없음'으로 인하여 좌절할 뻔한 이별의 전주일 망정 안아보지도 못하고 보내야 하는 심정이나 꼼짝없이 억압받고 죽어지내야 했던 '그들'이나 거울처럼 묻어

나고 거짓처럼 되새겨지는 역사의 이치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불륜의 주체들이 갖게 되는 영원한 어긋남까지 그 속에 서려 있다고 본들 뉘라 막고 무엇으로 아니라 하겠는가.

역사를 하노라고 땅을 파다가 커다란 돌을 하나 끄집어
내어놓고 보니 도무지 어디서인가 본 듯한 생각이 들게
모양이 생겼는데 목도들이 그것을 메고 나가더니 어디다
갖다 버리고 온 모양이길래 쫓아나가 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큰길가더라.

그날 밤에 한 소나기 하였으니 필시 그 돌이 깨끗이
씻겼을 터인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변괴로다
간데온데없더라. 어떤 돌이 와서 그 돌을 업어갔을까
나는 참 이런 처량한 생각에서 아래와 같은 작문을
지었도다.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그대여
내 한평생에 차마 그대를 잊을 수 없소이다.
내 차례에 못 올 사랑인 줄은 알면서도
나 혼자는 꾸준히 생각하리다.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어떤 돌이 내 얼굴을 물끄러미 치어다 보는 것만 같아서
이런 시는 그만 찢어 버리고 싶더라. ("이런 시" - 1933)

이루지 못할 인연과 성사시키지 못할 혁명의 꿈이 예서도 어김없이 반복 대입될 수 있는지는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리라. 변화에 관한 짝사랑. 의지를 넘어서지 못하는 능력. 그 사이를 맴도는 젊은이의 자괴와 영탄(永歎).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하고 감각의 풍요조차 의식의 빈곤을 이겨내지 못할 때 시인이 다다른 지점은 영토의 '끝' 이었다. 가난한 육체가 더 이상 나아갈 자유의 독립 공간을 찾지 못하고 감각과 인식의 버거움 마저 동시 자각하는 순간 시인이 할 수 있었던 행위의 극한은 자기 자신에로의 무한 퇴행, 그것뿐이었다.

비록 깃털보다 가볍고 연기보다 가없어 한층 무책임한 존재의 떨림으로 각인될

망정 식민지 시인이 20대 후반 나이에 벌써부터 퇴락한 육체의 분비물을 매만지며 묻어나는 저 쓰라린 고독의 파편 때문에 안으로 자꾸 안으로만 기어들려는 행동의 쇠약을 드러냈던 걸 '퇴폐' 하나로만 간단히 규정해 버려도 정말 괜찮은 걸까. 시인이 파는 묘혈과 향기 뿜어나는 꽃잎의 끝 '순(脣)'이 하필 자궁 입구를 연상시키는 것도 그렇다면 퇴폐스런 일이기에 생각을 게서 멈춰야 한단 말인가.

거꾸로 생각해 보자. 시인은 대관절 왜 이 같은 시를 그것도 '젊은 죽음'을 임박해 쓸 생각을 하였더란 말인가(이재복 2004, 196-212). 차라리 안겨버리고픈, 아니 도리어 가슴 묻고 아예 몸 묻어 영영 다시 나오고 싶잖은 대지를 이 땅이라고 생각했었던 걸까? 시로 말하는 시인은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시로 밖에.

그러나 이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꽃과 무덤의 이미지가 이제껏 감히 내지를 수 없었던 표현의 서랍 속 저 깊은 데서 퍼 올린 무의식의 내용물들이었다면 정말 여기서 근대인의 내면의식은 제대로 형상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던 걸까.

> 꽃이보이지않는다.꽃이香기롭다.香氣가滿開한다.나는거기墓穴을판다.墓穴도보이지않는다.보이지않는墓穴속에나는들어앉는다.나는눕는다.또꽃이香기롭다.꽃은보이지않는다.香氣가滿開한다.나는잊어버리고再차거기에墓穴을판다.墓穴은보이지않는다.보이지않는墓穴로나는꽃을깜박잊어버리고들어간다.나는정말눕는다.아아.꽃이또香기롭다.보이지도않는꽃이 … 보이지도않는꽃이("絶壁" - 1936. 10).

'위독(危篤)'이란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산문시 연작 가운데 하나인 이 시는 그야말로 위독한 상황에 처한 정신의 극점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남진우는 화자의 내면세계가 외부와 격절(隔絶)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폐적이고 끝없는 반복 굴레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순환적이며 그런 쓸모 없고 소모적인 상태를 탐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리적이라고 강조한다. 보이지 않는 꽃의 비가시성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대상에 대한 접근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꽃의 생명력과 정반대되는 죽음의 묘혈에 이를 뿐이다. 태아처럼 자기가 판 무덤에 드러눕는 화자의 모습은 자궁 회귀의 욕망과 더불어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일치되는 순간에 대한 추구를 담는다는 것이다. 황홀경과 고뇌를 동시 선사하는 내면의 심연을 처음 발견했다는 점만으로도 이상 문학의 근대성은 선구적이라고 그는 믿는다(『조선일보』 04/01/17, D7).

신범순은 또 어떠한가.

> 이상의 시들에서는 그 주체가 언어들의 무한한 연쇄 가능성 속에서 사유의 어떠한 통일성도 잃어버린 채 비틀리고 분산된다. 그 주체는 도대체 일정하게 어떠한 말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사유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다. 언어들의 무한한 결합 가능성 속에서 그러한 주체의 통일적인 영역들을 부스러뜨리는 것이 아마도 그의 시가 갖는 음흉한 목표가 아니겠는가?(신범순 1998, 153)

목표의 음흉함이라는 것이 곧 모더니즘 문학의 계략이자 시인의 의도적 반항을 가려주는 보호막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붙여쓰고 어렵게 쓰며 지나면 뒤돌아보게 하면서 행간의 의미를 자극하는 문학적 반란의 '가리개'와 비일상성의 시학은 만만찮게 펼쳐지고 있었다. 문학 인구의 저변과 동조 세력의 부피와는 관계없이 말이다.

이성에 기초한 정치적 권리 주장이 혁명의 시대를 재촉한 튼튼한 토양이었듯 질식할 것 같은 '무정치(無政治)'와 역사단절의 공백을 어떻게든 메우고자 시인이 착수한 작업은 '조급한 근대'의 구성이었거나 아니면 '무능한 근대'의 역설적 질타(叱咤)로 당장은 극도로 난해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 도회적 삶의 양식과 분주한 일상. 왜풍(倭風)의 진작(振作)과 인위적 동화. 카페와 다방. 술 문화와 담배 문화의 서구적 확산. 넘쳐나는 자동차와 전차의 경합. 우리에겐 당장 없고 저들에겐 늘 구비되는 차이의 팽배. 박탈감의 존치와 일탈 의식의 지탱.

그렇다면 다시 묻자. 그에게 있어 '퇴폐'의 이미지는 무엇으로 살아나는가. 그 역시 함정이자 전술이었을까. 이상을 퇴폐주의 계보에 단순 편입시킬 수 없는 것처럼 그를 여전히 취약한 근대 지평 한 복판에서 외롭게 깃발 흔들던 인물로 확대 일반화하는 것도 문제는 문제였다. 하지만 대책 없이 그를 자꾸 이 대목에서 만나게 되는 까닭은 시어의 구사와 논리 전개에 스며든 도발성 혹은 인문학적 통렬함을 미리부터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상성의 파괴. 그러니까 근대적 삶의 양식이란 것이 한껏 가지런하지도 정돈되어 있지도 않은, 오히려 어지럽고 무질서한 관계의 중첩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

럼 뭘까. 중세적 삶의 질서가 파괴와 개혁의 이름으로 호도되며 새로운 모습을 갖추되 한층 헷갈리고 난해한 가족파괴 형식을 취하는 것도 저항과 도발을 목적으로 했던 모더니즘 특유의 문학적 자원이었을까(따지고 보면 '문학사상' 이니 '사회학적 이데올로기 차용' 이니 하는 따위의 일련의 조어과정도 모두 후대의 인간들이 갖다 붙인 자기 위안의 행위 아니었을까)?

시대의 낙오자가 몇 명이었는지 당대의 문학이 통계까지 염려해야 할 이유는 물론 없었다. 또 어느 희한한 경우를 이야기하거나 렌즈를 있는 대로 잡아당겨 그것을 현미경처럼 한껏 펼친다 해도 부분의 이야기로 전체를 유추한다는 건 분명 무리였다. 하지만 하나를 확대해도 그 안에 전체의 단면이 기막히게 우러나고 조각난 파편 위에 전체의 슬픈 평균값이 묻어나는 이치는 왜였을까. 그리하여 잔잔한 감동이 오래도록 우리의 뇌리를 사로잡고 그 곁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모두의 영감을 유예시켰던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경제활동의 주체이어야 할 '내' 가 노동하지 않고 계집의 등을 쳐도 문학적으로 전혀 무방한 점이나 그 같은 행위가 작품 안에서 줄곧 허여되고 있는 역사적 천연덕이 무얼 뜻하는지 여기서는 아주 새삼스럽다. 기생 금홍과의 실제 동거와는 별도로 「지주회시」에 등장하는 가족의 비일상적 관계가 하필 30년대 조선의 상황을 염두에 두도록 자꾸 자극하는 것도 정말 모더니즘이란 이름의 허구적 이데올로기와 관계가 있는 것일까.

> 양말 - 그는안해의양말을생각하여보았다. 양말사이에서는신기하게도밤마다지폐와은화가나왔다. 50전짜리가딸랑하고방바닥에굴러떨어질때듣는그음향은이세상아무것에도비길수없는가장숭엄한감각에틀림없었다. 오늘밤에는안해는또몇개의그런은화를정강이에서배앝아놓으려나그북어와같은종아리에난돈자국-돈이살을파고들어가서 - 고놈이안해의정기를속속들이빨아내나보다. 아 - 거미 - 잊어버렸던거미-돈도거미 - 그러나눈앞에놓여있는너무나튼튼한쌍거미-너무튼튼하지않으냐. 담배를한대피워물고 - 참 - 안해야. 대체내가무엇인줄알고죽지못하게이렇게먹여살리느냐-죽는것 - 사는것 - 그는천하다. 그의존재는너무나우스꽝스럽다. 스스로지나치게비웃는다. … 전신의피-무게-와있겠지 - 기다리겠지 - 오래간만에취한실없는사건 - 허리가녹아나도록이녀석 - 이녀석 - 이엉뚱한발음 - 숨을힘껏들이쉬어두자. 숨을힘껏쉬어라. 그리고참자. 에라. 그만아주미쳐버려라(윤형두 1994, 109-110).

여기서 비치는 반(反)유교적 몰염치나 윤리 · 도덕 따위의 철저한 무시는 당대 인문학에서 가슴 설레던 '근대성'과 함께 이미 개인의 호기심 차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더욱 역설적이게도 이는 기존 소설 체계에 대한 무차별 교란이나 파괴의 감행을 뜻했다. 그렇지 않아도 민중권력의 빈곤과 체제 전복을 단행할 만한 정치적 무게중심의 부재가 집단 자학의 경계를 넘나들 무렵 '아무 것도 할 수 없음'과 '무엇이라도 해야 함'의 상호 강박을 문학이 수용해 가고 있던 형국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김치수는 이렇게 압축한다. "희망도 절망도 할 수 없는 식민지시대의 지식인으로서 그는 자기를 정직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의 무기력함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특이한 형식을 통해서 정신적 분위기를 충격적으로 보여주었다. 그것이야말로 찢겨진 의식, 분열된 의식을 붙들고 그 시대의 절망적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김치수 외 1972, 237).

비일상성의 낭만적 성격이나 반역사성 까지는 의식하지 않는다 해도 이상이 취한 파격과 그에 관한 추적이 만만치 않은 일임은 굳이 토달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주회시」만이 아니라 그의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난해함과 소위 '미친' 듯 보이는 난맥 또한 단순히 모더니티만으로는 재단하기 힘든 그만의 세계를 함축한다(정희모 1996, 433-454; 이강언 1986, 81-96). 모더니즘뿐만 아니라 2, 30년대가 관통해야 했던 온갖 정신세계의 자락들을 거론할 때 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도 그 흔한 지명도나 '튀는' 이미지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생각이 당대를 이해하는 감각의 극단과 형용하기 힘든 문화적 말초 대부분을 자극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증거와 물리적 기억까지 동원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빈곤, 매춘, 퇴락, 거짓 사랑, 연정, 사정(射精), 회음(會飮/誨淫), 댄디, 방임, 감각적 무책임, 암울, 떠돎, …. 이상에서 시작하고 이상에서 끝나버리는 가히 주제의 독점과 감흥의 소진을 반증하는 문학적 예외 현상은 그래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한민주 2002, 35-49; 이은애 1999, 341-366; 류지용 2002, 167-192).[2)]

---

2) 강점기 조선의 문화 코드로 '잡지'와 '카페', '여급(*Waitress*)'의 존재는 모더니즘 정착과 섹슈얼리티 분화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 이에 관한 체계적 논의로는 서지영 2003; 김연희 2001; 안미영 2000; 조진기 1978; 박숙영 2005를 참조할 것.

2. 게으름의 정치: 영구식민(永久植民)의 불안 다스리기

「권태(倦怠)」는 30년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만한 정치적 역설도 더는 없으리라. 죽자고 대들며 대지를 시끄럽게 하든 아니면 아예 죽어버리든 온몸으로 뒹굴어도 시원찮을 강압의 시대에 우울과 무기력의 나날로 삭아드는 목숨 조각이나마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저 기막힌 역설을 자조의 웅변으로 드러내는 작품 치고 이만큼 지겹도록 긴 문장도 없었을 터이다.

> 이 마을에는 신문도 오지 않는다. 소위 승합 자동차라는 것도 통과하지 않으니 도회의 소식을 무슨 방법으로 알랴? 五官이 모조리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다. 답답한 하늘, 답답한 지평선, 답답한 풍경 가운데 나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굴고 싶은 만큼 답답해하고 지내야만 된다.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이상으로 괴로운 상태가 또 있을까. 인간은 病席에서도 생각하는 법이다. 끝없는 권태가 사람을 엄습하였을 때 그의 동공은 내부를 향하여 열리리라. 그리하여 忙殺할 때보다도 몇 배나 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의 특질이요, 질환인 자의식의 과잉은 이런 권태치 않을 수 없는 권태 계급의 철저한 권태로 말미암음이다. 육체적 한산, 정신적 권태, 이것을 면할 수 없는 계급이 자의식 과잉의 절정을 표시한다. 그러나 지금 이 개울가에 앉은 나에게는 자의식 과잉조차가 폐쇄되었다. 이렇게 한산한데, 이렇게 극도의 권태가 있는데, 동공은 내부를 향하여 열리기를 주저한다. 아무 것도 생각하기 싫다. 어제까지도 죽는 것을 생각하는 것 하나만은 즐거웠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조차가 귀찮다. 그러면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말고 눈 뜬 채 졸기로 하자. 더워 죽겠는데 목욕이나 할까? 그러나 웅뎅이 물은 썩었다. 썩지 않은 물을 찾아가는 것은 귀찮은 일이고 -, 썩지 않은 물이 여기 있다기로 소니 나는 목욕하지 않으리라, 옷을 벗기가 귀찮다. 아니! 그보다도 그 창백하고 앙상한 瘦軀를 白日 아래에 널어 말리는 파렴치를 나는 견디기 어렵다. 땀이 옷에 배이면? 배인 채 두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더위는 무슨 더위냐. 나는 일어나서 오던 길을 돌치는 도중에서 교미하는 개 한 쌍을 만났다. 그러나 인공의 기교가 없는 축류의 교미는 풍경이 권태 그것인 것같이 권태 그것이다. 동리 童孩들에게도 젊은 촌부들에게도 흥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함석 대야는 그 본연의 빛을 일찍이 잃어버리고 그들의 피부색과 같이 붉고 검다. 아마 이 집주인 아주머니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것이리라. 세수를 해 본다. 물조차가 미지근하다. 물조차가 이 무지한 더위에는 견딜 수 없었나 보다. 그러나 세수의 관례대로

세수를 마친다. 그리고 호박덩굴이 축 늘어진 울타리 밑 호박덩굴의 뿌리 돋힌 데를 찾아서 그 물을 준다. 너라도 좀 생기를 내라고. 땀내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훔치고 툇마루에 걸터앉았자니까 내가 세수할 때 내 곁에 늘어섰던 주인집 아이들 넷이 제각기 나를 본받아 그 대야를 사용하여 세수를 한다. 저 애들도 더워서 저러는구나 하였더니 그렇지 않다. 그 애들도 나처럼 일거수 일투족을 어찌하였으면 좋을까 당황해하고 있는 권태들이었다. 다만 내가 세수하는 것을 보고 그럼 우리도 저 사람처럼 세수나 해 볼까 하고 따라서 세수를 해 보았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倦怠 - 7 中 4/1936〕

아무리 작품으로 말하고 더 이상의 육성은 유보한다 해도 이쯤 되고 보면 작가적 특권을 박탈하고 답답한 속내 한번 까발려도 보고픈 충동을 왜 아니 느낄 일이겠는가. 더구나 다음 연(連)을 따라가노라면 스스로 목숨 끊을 까닭도 찾지 못하여 한번 더 지겨워하며 그래도 자고 나면 내일은 올 것이기에 희망마저 넋두리로 길어 오르는 패러독스를 기어이 발견하게 된다.

그에게 내일은 없었다. 혹여 무슨 일이라도 생기거나 아니면 들뜨고 가열 찬 시간들로 기다려지는 것 또한 아니었다. 이념은 버겁고 생존은 지루하기만 한 그런 삶. 가망은 없어도 고스란히 살아남아 하는 수 없이 심심해하기라도 해야 할 시간들. 지겨워도 순간을 버티며 숨쉬고 있어야 하는 그저 막연한 세월. 하지만 작가는 어디서도 '지겹지만 죽지 못해' 사는 마지막 방편이 이승의 삶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차라리 희망은 잠시 후에 올 수도 있을 것이란 믿음을 전제하며 강점기 조선 민중 전체의 사회적 질식과 역사적 아득함을 조목조목 대변하고 있었다.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를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얼마나 권태에 지질렀길래 이미 胃에 들어간 食物을 다시 게워 그 시금털털한 半消化物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향락하는 체해 보임이리오?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나는 소 앞에 누워 내 細菌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 〔"倦怠" - 7 中 5〕

그 짓도 오 분이다. 그 이상 더 길게 이 짓을 하자면 그들은 피로할 것이다. 순진한 그들이 무슨 까닭에 피로해야 되나? 그들은 위선 싱거워서 그 짓을 그만둔다. 그들은 도로 나란히 앉는다. 앉아서 소리가 없다. 무엇을 하나. 무슨 종류의 유희인지, 유희는 유희인 모양인데 - 이 권태의 矮小 인간들은 또 무슨 기상천외

의 유희를 발명했나. 오 분 후에 그들은 비키면서 하나씩 둘씩 일어선다. 제각각 대변을 한 무더기씩 누어 보았다. 아 - 이것도 역시 그들의 유희였다. 속수무책의 그들 최후의 창작 유희였다. 그러나 그 중 한 아이가 영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는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그는 이번 유희의 못난 낙오자임에 틀림없다. 분명히 다른 아이들 눈에 조소의 빛이 보인다. 아 - 조물주여, 이들을 위하여 風景과 玩具를 주소서. 〔"倦怠" - 7 中 6〕

날이 어두워졌다. 海底와 같은 밤이 오는 것이다. … 이것이 시체와 무엇이 다를까? 먹고 잘 줄 아는 시체 - 나는 이런 失禮로운 생각을 정지해야만 되겠다. 그리고 나도 가서 자야겠다. 방에 돌아와 나는 나를 살펴본다. 모든 것에서 絶緣된 지금의 내 생활 - 자살의 단서조차를 찾을 길이 없는 지금의 내 생활은 과연 권태의 極 그것이다. 그렇건만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는 날이 새지 않는 것 같기도 한 밤 저쪽에 또 내일이라는 놈이 한 개 버티고 서 있다. 마치 흉맹한 刑吏처럼 - 나는 질식할 만큼 심심해해야 되고 기막힐 만큼 답답해해야 된다. 그럼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지냈던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냥 자자! 자다가 불행히 - 아니 다행히 또 깨거든 최 서방의 족하(足下)와 장기나 또 한 판 두지. 웅덩이에 가서 송사리를 볼 수도 있고 - 몇 가지 안 남은 기억을 소처럼 반추하면서 끝없이 나태를 즐기는 방법도 있지 않으냐.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끈다. 불나비는 죽었든지 화상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불나비라는 놈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다. 불을 보면 뛰어들 줄도 알고 - 平常에 불을 초조히 찾아다닐 줄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 없다. 나에게는 아무 것도 없는 내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암흑은 암흑인 以上이 좁은 방 것이나 우주에 꽉 찬 것이나 분량상 차이가 없으리라. 나는 이 大小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 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또 창 밖에 等待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倦怠" - 7 中 7〕

그러나 이 같은 권태의 끝이란 게 작가의 죽음으로 귀결되는 시대의 아이러니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역사 속 비정(非情)의 빈발? 작가의 영혼 고갈과 물리적 쇠잔? 시대의 역사적 소멸? 합방 직전(1910. 8. 20) 태어나 망할 조짐은커녕 비대해져만 가던 일본의 또 다른 도저한 전쟁(中 · 日)을 목전(1937. 4. 17)에 두고 사라진 스물 일곱 살 식민지 문인의 삶이 '퇴폐'로도 다 집약되지 않는다면 그 나머

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걸까. '슬픔'과 '기쁨'이라는 단순한 정서로만 재단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간 극단의 대척점(對蹠點) 사이에서 평균값을 구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 답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물음 앞에서 간단하고 명쾌한 대답을 끌어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작가의 죽음 이후 진혼 나팔처럼 울리던 애수와 퇴폐의 아름다움이 문학적으로 규정될 차비 마저 갖추고 있었음은 또 하나의 기막힌 우연이었다.

III. 서인식: 전향 좌파의 문학사상과 역사철학

1. 제국의 아침과 세계의 태양

30년대 말, 조선 지식인들은 흔들리고 있었다. 특히 문학의 역할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디서 멈춰 다른 출구로 달려나가도 괜찮은 것인지 구실 찾기로 분주할 때 방황의 정치성은 더해가고 있었다. 핍박의 역사 속에서 '실천'이란 화두를 눈앞에 둔 식민지 문인들의 인문학적 거점 마련이란 그래서 간단치가 않았다.[3)]

몸부림치다 사라진 젊은 문인의 전적(戰績)과 아랑곳없이 가혹하지만 방황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상이 죽어 이상(理想)이 사라졌던 게 아니라 이미 휘발된 꿈 곁에서 그의 삶조차 떠올릴 까닭을 찾지 못하던 세월은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모종의 절박감만 재촉하고 있었다(박건용 2005, 103-106). 존재의 문제는 모질고 혹독했던 셈이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문학의 사회화 혹은 정치참여를 자극하는 계기를 이뤄 나갔지만 더욱 중차대한 것은 조선 지식인들의 일본에 대한 주눅 부피를 도무지 정량화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죽음처럼 스러지는 '안타까움'의 문학적 호출보다 '살아남음'의 정치적 변명이 더욱 혈안의 지상목표가 되어갈 즈음, 의연함이니 가열찬 투쟁의 국내지반 확보니 하는 어휘들을 '부르짖음'은 목숨과 맞바꿀 철(鐵)의 폭력 의지 없이는 힘

3) 그렇다고 이 좁은 지면에서마저 '친일'과 '항일'의 단순 잣대로 당대 문인들의 정치적 성향을 재분류하고 인구조사까지 나설 여유는 없다.

겨운 일이었다. 적어도 조선이 그처럼 섬기던 중국을 세기말에 이어 한차례 더 치겠다고 나서는 일본을 향해 투쟁 불사하고 나아가 견결한 독립 욕구를 실천으로 내비치는 일이란 여간해서 모습을 갖추기 어려웠던 것이다. 적어도 천만년 지탱할 '식민지배'의 위용을 헛것처럼 신봉하는 한, 환상의 나날은 문학적 패기로도 쳐부술 일이 도무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 속에서도 문학 진영의 진지한 역사 반추와 철학적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정치적 '암담' 속에서도 소생할 기운과 새로운 존재로의 변환을 꿈꾸며 당대를 전환기로 인식한 이들이 생겨나고 있었음은 30년대 중반 카프의 해체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전향 좌파 서인식[4]은 그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논리로 자신을 무장한다. 그것이 반드시 폭력적 실천을 통한 즉시혁명이나 도발적 저항을 거친 완전분쇄의 과격성을 띠는 건 아니었지만 그의 생각은 남달랐다. 궁극에 이르러 일본과 조선이 하나 되기 보다 동양의 통일과 식민지 해방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비판이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먼저임을 계몽 · 설파[5]하기 위해 그는 새로운 지성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한다(손정수 1996a, 25). 나아가 '세계사의 철학'을 논하고 '공간의 정치'를 재편하는 것이 지식인의 당대 책무임을 강하게 의식한다.

식민지에서 '세계'를 말한다는 건 분명 주제 넘는 일이었다. 자발적 독립과 타율적 해방의 전략조차 도모하지 못한 가운데 세계 속에 기대어 세계 질서 자체의 재구성을 외치는 이른바 '말씀'의 공허는 지성의 정치적, 역사적 기능 또한 제한적일 수 있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일이기도 했다. 서인식은 '사실은 행동에 포섭되는 때에만 현실적으로 지배될 것'이라고 말한다(손정수 1996a, 26). 따라서 지성의 문제는 지성 내부의 입장과 입장간의 문제 그리고 지성과 행동간의 문제 등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현대는 지성이 행동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시기이며, 바로 그렇기에 지성문제가 현대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서인식은 '지성을 행

---

4) 생몰(生歿) 연대는 미상. 30년대 후반부터 평론 활동을 시작했고 해방 직후 월북한다. 일종의 문화비평을 시도했고 전체주의, 세대론 등에 관한 글을 주로 썼다. 저서에 『역사와 문학』(서울: 문장, 1939)이 있다.

5) 이는 사실상 미키 키요시를 비롯한 소위 교토학파 역사철학자들의 논의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함동주 1999; 차승기 2003을 참조할 것.

동으로 소화 못하는 경우에는 지성을 반추하는 것만도 지성에 사는 사람의 양식'이라고 스스로 위무한다.

> 입장을 떠난 지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성의 이른바 비판적 특성이라 하는 것도 지성이 입장적인 데서 가능한 것이다. … 그러므로 지성에 사는 인간은 늘 일정한 입장에 사는 것이며 따라서 지성을 버리지 않는 한 그는 늘 일정한 입장을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사람을 따라서는 지성은 입장적(*Standpunktlich*)이 아니고 견지적(*Gesichtpunktlich*)이라 할른지 모른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견지도 일의적 일방적인 한에는 입장에까지 심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성은 늘 일정한 입장에서 일정한 가치에 의하여 '사실'을 비판하는 직능을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이 그 직능의 포기를 요구할 때도 그 직능을 버리지 않는 데에 '논리'가 동시에 '윤리'가 되는 엄숙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조선일보』 38/07/30).

이 같은 입장에서 그는 일상적 시대의식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를 초월하기 위해서 역사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지성론'을 통해 도달한 그의 역사의식은 부정성(否定性)에서 비롯한 무한한 행위의 과정을 지칭하고 있고 이때 역사는 행위의 체계로 다시 인식된다. 행동은 사회체계를 구성하며 현대를 긍정하는 '현대적 현재'의 입장에서 성립하는 것인 반면 행위는 늘 부정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현대를 부정하는 '미래적 현재'의 입장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손정수 1996a, 27).

여기서 바로 그는 전통의 질서가 역사 인식의 적극성과 미래지향성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날 미지의 지성과 연결 · 고무될 필요까지 주목한다. 미래가 과거에의 안주나 회귀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도 이로써 충분히 변명 가능한 셈이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불안한 정치 조건 속에서 연약하게 패배하거나 정서의 무기력에 스스로 빠져 싸움도 걸어보지 않고 물러나 버리는 의지의 말살과는 애당초 거리를 두는 일이었다. '전면 궐기 · 총체 저항'의 기치는 아니로되 부단히 지향하고 쉼 없이 변신하려는 역사의식을 통해 자연과 사회의 기정성(既定性)과 싸우고 미래의 질서를 만들려는 그의 생각은 여하튼 「죽은 시인(李箱)의 사회」보다 한 단계 앞선 모양은 아니었을까.

넘지 못할 당대의 벽에 어쩔 수 없이 기대고 엽히었으되 그 속에서 '세계를 꿈꾸고 새로운 정치와 역사를 그리는' 행각은 식민지 문인치고는 화려했다. 하지만

그것은 입체적 조형성과 마술의 호기마저 동원한 환타지는 아니었다. 다만 종주국 지식인들의 철학적 사유와 최대한 변별 효과를 드러내고자 애썼던 그의 입장이란 꼼짝없이 눈물 흘리고 엎드려 기어야만 하는 저 초라한 예종에의 길만은 죽어도 아니었다. 그의 행로인 즉슨, 종당(終當)에 '전향'과 '월북'으로 나타날망정 '절대 순종'으로 귀결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창조와 전통의 대립관계에서 전통이 우세한 상황을 반대한 그로서는 적극적 변화의 역사 동력이 미래를 이끌고 그것이 곧 현대를 발판으로 삼아야 할 때 전통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단정했다. '월북'은 나중 일이었지만 '전향' 역시 중일전쟁 전후의 요동치는 정세를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하려는 길목에서 단행한 역사의식의 결과였다. 전향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몸'을 휘감던 다른 '신념'이나 '사상'이란 것도 일단 이렇게 본다면 적극적 자기 쇄신을 통해 실천으로 나아가게 만든 현실적 지표일 수 있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는 서인식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적극적 전향을 요구하는 당대의 정세 판단과 미래지향적 역사인식을 방해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이길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협동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도리어 '저들'이 세계화 '되어야' 할 당위와 대세 앞에서 시나브로 대들고 꺾으려 듦은 부질없고 하릴없는 일임을 계몽하는 데 주력하고 싶었을 것이리라. 부단히 애쓰고 무언가 치열하게 도모함으로써 현재를 초월하는 행위(손정수 1996b, 233)는 무위와 권태, 나약과 우울의 시간 속에서 꼼짝달싹 않고 스스로를 관조하는 이중 소외의 '그것'과는 동떨어진 독자성의 무게와 거리감을 확보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과 그에 따른 초월적 행위가 곧 성공과 감동의 역사를 담보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였다.[6]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아니 현재를 과거로부터 떼어내 미래의 당위로 가열 차게 밀고 가야 한다는 자기주문은 기어이 '해내야만 한다'는 역사의 절대적 요구와 맞물릴 때 그 속에서 자유로운 행위 경로와 판단 무대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위가 현실로 성큼 다가오지 않을 때 역사의 허무와 그 인식 주체의 무능을 달랠 방도는 식민

6) 그가 월북한 이후 한국 현대사의 결과론적 판세를 토대로 가혹한 '토끼몰이'나 의도적 사냥을 의식하고 하는 말이 아니다.

지 문인에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군사력으로 충만한 조선의 대항 폭력까지는 그만두더라도 이 같은 역사의식의 가상함을 공유할 동포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게 분명 비극이었다. 그것을 오늘의 용어로 '의식화'라 부르든 아니면 '친일의 추억'으로 매도하든 식민의 세계에서 새삼 '세계'를 꿈꾸고 이를 견인할 일본의 역할을 조선의 입장에서 '협력'으로 개념화하려는 의도는 그가 어떤 마르크시스트였는지의 물음과 맞물리게 한다(전상숙 2004; 김재현 2002; 성대경 2001, 185-188).

이 무렵 그는 미키 키요시(三木 淸 · 1897~1945)의 '세계사의 철학'과 '동아협동체론'의 파장 속에서 분명 동요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세계'의 이념을 규제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미키의 태도를 반복함으로써 와츠지 테츠로(和辻哲郎 · 1889~1960)나 코우야마 이와오(高山岩男 · 1905~1993)로 대표되는 일본주의 교토학파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7] 중일전쟁 이후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뿐 아니라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는 '세계경영' 과정에서도 일본의 승세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동양의 통일과 식민지 해방을 고수하는 '동아협동체론'이란 학파 내부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처지였다. 하물며 논리의 배제와 수세적 상황 속에서도 억압적 계몽과 규제의 철학을 추수(追隨)하고자 동반 투쟁한 서인식의 입장에서랴.

그러나 저들의 '욱일승천(旭日昇天)'과 서인식의 일본제국주의 비판논리가 조화롭게 양립하기란 '절대독립'의 즉각 실현만큼이나 힘들었다. 점차 벌어져만 가는 의지와 능력 사이의 간극도 고통이었지만 도저히 올 것 같잖은 해방과 자유의 허구적 공간 속에서 압도당할 대로 당한 논리의 외피와 개념의 투구를 뒤집어쓴 채 살아야 함은 곧 등이 휘는 무게감 그 자체였으리라(윤상인 2005, 245-275). 하물며 그 속에서 민족을 계도한다든지 이들을 근대 시민으로까지 '거듭나게' 하고자 애쓰고 되뇌며 오열하였을 일까지랴.

동포의 무지나 무능보다 서인식을 더욱 힘겹게 한 것은 되돌릴 가망 없고 나아질 기미 없는 저 부박한 역사 그 자체였다. 그런 줄 모르고 시작한 전향도(공임순

---

7) 서인식은 애초에 미키가 제기했던 '세계사의 철학' 가운데 '세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일종의 규제 이념으로 사용, 현실 지배를 공간적으로 확대해가던 일본을 비판한다. 즉 '세계사의 철학'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더욱 극단으로 밀어붙여 일본의 현실적인 '세계 지배'를 공격한다(차승기 2003, 251; 266).

2005)[8] 아니었고 혁명이 독립보다 먼저 임을 알지 못했던 그도 아니었다. 나라가 온통 패배의식에 젖어들고 있을 때 이러다 곧 조선이 멸망할지 모르리란 불안의식이 세상을 지배하던 삶의 형국도 그만이 치러야 할 시련은 아니었다.

조선의 문단은 벌써부터 역사의 몰락을 감지하고 있었다. 절망의 심연에서 빠져나오느냐 마느냐의 기로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늪 속에서 최대한 자유로울 수 있는 부유(浮游)의 공간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이며 더욱이 치러야 할 대가가 고통이라면 그것을 또 어찌 즐겨야 할 것인지 역설의 화두·마저 감내하려 들고 있었던 게 문제라면 문제였을 터이다.

2. 애수와 퇴폐의 아름다움

침묵과 우울의 30년대가 저물어갈 때 그가 하필 「애수와 퇴폐의 미」(서인식 1940, 55-60; 박종성 2004, 235-240)를 발표하려 했던 건 뭘 의미하는 걸까. 두 가지 정서가 그것도 '아름답다' 고 강변하고 팠던 문인의 패러독스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그는 "세대의 새로운 전환이 오기 전에는 이 땅에서 애수와 퇴폐의 범람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시대의 새로운 전환이 있지 않는 한 현대의 전면을 흐르고 있는 페시미즘은 고갈할 리 없을 것"이라며 당대 문단에서의 퇴폐와 애수적 경향의 심각성을 꼬집는다(김진희 2003, 84).

그것은 문단의 풍조만을 이르는 인문학적 개탄이 아니었다. 문학이 시대와 역사를 거스를 수 없는 한 이는 정치의 또 다른 얼굴이요 사회의 뒤집어진 면모였다. 문학이 애수와 퇴폐를 우려함은 곧 시대와 사회가 그러함을 웅변으로 반증하는 일이었고 척박한 역사의 모래밭 또한 그렇게 젖어들어야 함을 일러주는 계기이기도 했다.

따지고 보면 문학의 정치성은 반드시 시나 소설류의 제한된 장르안에서만 솟구치지 않았다. 수필과 산문 형식 역시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 얼마든지 대중적 흡인력을 발산할 수 있었고 바로 거기서 정치적 메시지 또한 우러나왔다. 하지만 산문정신의 가치는 시대를 다루는 작가의 통찰력에 따라 달라진다(조영복 2003, 177).

---

8) 전향의 이념적 풍향이 모조리 좌익으로만 기울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다. 이들에 관한 문학적 취급으로는 현길언 1996을 참조.

작가가 시대의 지배적 조류를 간파할 때 그 정신은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는 이 수필에서 30년대에 널리 퍼져 있던 무력감과 소극적 풍조를 대립 개념을 들어 설명한다. 그와 함께 당대의 지성사를 예리하게 벼리고 가른다. '애수'와 '퇴폐'라는 두 개념에 대한 당대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모두 극복해야 할 과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그는 40년대 이후 조선 지성사의 방향 모색에도 강력한 암시를 던진다. 여느 월북 문인과 같이 작품 추적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의 만만찮은 산문 한편이 이상의 죽음 이후 그를 되돌아보고 달리 읽어볼 수 있는 계기를 이루었음도 재론의 여지는 없다.

그것은 이상의 문학사적 위상이나 정치적 충격과는 별도의 문제였다. 오히려 30년대라는 시대가 피치 못할 거대 조류에 물들어가고 있었고 작가 서인식 조차 빠져버릴지 모를 흐름으로부터 애써 자유롭고 객관적이고자 노력했던 관찰 결과이기도 했다. 이른바 '데카당'이라 부르던 야릇하고 어쩌지 못할 당시의 기운은 결코 일시적이지 않았다. 전반적이면서도 모두에게 심각한 것이었다(신범순 1998, 40). 그저 단순히 내다버릴 비열과 저속의 퇴폐[9]만이 아닌.

성적 보수주의나 이 땅의 문화 심리적 이중성은 여전히 숨어 즐기고 혼자만 밝히는 감각적 왜곡 대상으로 퇴폐개념을 인식하게 했다. 문학 속에서의 '그것' 역시 주도적 관심이나 결정적 분석 대상으로 떠오르지 않는 기형성을 드러낸다. 이미 살펴보았듯 서인식의 관심 대상[10]이 비단 퇴폐나 애수라는 감각적 극단에만 맴돌고 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연구의 희소[11]나 이것 말고는 별다른 천착이 없다는 점에서 문학사의 역설은 얼마든지 입증 가능해 진다. 결국 '그의' 주장에 드러난 예외성과 마찬가지로 그에 '관한' 연구의 제한성은 강점기 조선 문학의 정치적 한계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드러낸다.[12]

---

9) 문학에서 말하는 데카당이 문화 일반의 퇴폐적 흐름이나 '비속성(卑俗性)'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문제는 달리 연구된 바 없다. 그러나 강점기 퇴폐문학의 단면을 다시 보며 이를 상상하기로는 좋은 연구들이 있다(김윤식 1990, 27-62; 박윤우 1999, 133-165; 임영남 1997; 김진희 2002).

10) 서인식의 집필 목록은 손정수 1996a, 73-74를 참조할 것.

11) 강점기 연구를 '덜'해 왔던 이유마저 여전히 불분명한 건 왜일까.

12) 이에 관해서는 손정수 1997, 3114-3147; 2002, 332-350을 참조할 것.

> 쓸말이많으면서도 쓰기쉽지안은 與題의하나이다. 쓸말이많은것은 아마 우리自身이 어느意味에있어서는 現代에投託할곳을갖지못한「보헤미안」인 탓이려니와 그리면서도 쓰기쉽지안은것은 哀愁와頹廢의美를말하고지내기에는 우리의앞에놓여있는現實의 가지가지의 事實이 너무나 嚴肅하기때문이리라(서인식 1940, 55-56).

사람들의 보편적 방랑벽과 현실의 엄숙함이야 강점기라 하여 어디 특히 더하고 덜할 문제였겠는가. 할말의 많고 적음이나 그에 따른 부담부터 토로하려 함은 그만큼 생각과 논리가 진지했기 때문이었으리라. 아름다울 수 없는 것들을 굳이 아름답다고 규정하려 할 때 나타나는 논리적 긴장도 긴장이었겠지만 현실의 엄숙함에 눌려 시대를 결정하고 이끈 정신의 진수를 제대로 붙잡지 못할까보아 미리 염려하는 일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철학적 반어법 수사에 충분히 길들여진 그가 아니었는가.

그는 앞서 지성의 과잉이란 지성의 편재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곧 지성의 빈곤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따라서

> 知識人에게 知性이 過剩하다는 것은 그들이 知性에 食傷하엿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圍繞한 現實이 너무 非知性的이라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조선일보』 38/07/24).

작가는 여기서 '애수'의 미학을 개념 자체의 측면과 현대적 생활세계의 구체적 실상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즉 양면성을 지닌다고 본다. 우선 개념적으로 애수는 상실한 것에 대한 회고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고 '환희'와 '비애'라는 모순된 속성을 지닌다. 현대적 의미로 보면 애수란 오늘의 시기적 특성이 빚어낸 안타까운 정조일 수도 있지만 지나간 '것'에 대한 애정이라는 점에서 봉건 의식과 연관된 양면성을 동시에 머금는다.

> 哀愁와頹廢는 現代美의 諸相가운데서도 가장普遍的인性質을 띤것이아닌가생각한다. 現代에사는 人間은 누구나그 心情의어느구석에든 哀愁의情을지니고 있는듯하며 그性格의어느面에든 頹廢의相을갖고 있는듯하다. 저무럼거리에나서게 되면 한종일 執務에부닥기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라리맨의疲勞한顔色에서도 잃어버린그무엇에대한 悲哀를찾을수없으며, 밤酒家를 들추게되면 낯빛이蒼然한 靑年

들의술잔을잡을때에 짓는奇怪한表情속에서도 그들의바르지못한 性格의 一面을 엿볼수있다. 뿐만아니라 哀愁와頹廢 이두낫의美의樣相에 대해서 類다른魅力을 느끼는것도 現代人의趣向이아닌가 생각한다. … 小說에있어서 李孝石氏의 一聯의短篇(學藝社編短篇集에收錄된)을비롯하여 崔明翊氏의『心紋』이나 李箱의『날개』가 우리의共感을 자아내는것은 程度와 種類의相違는있을망정 그들이 비저내는獨特한 哀愁와 頹廢의美가아닐가 생각한다.

먼저 哀愁의美學부터말한다면 이것은「임의지내간그무엇」「임의잃어버린그무엇」에대한回顧意識을根底로하고 이러나는法이다. 지난날에갖고있다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마음의傷痕이란 밤송이같이 時日이經過하면 차츰 우리의靈魂을 날카롭게찌르던 銳利한棘皮를벗게된다. 이리하여 우리들의 精神이 그마음의 傷處에대해서 어느程度의自由를얻게되면 過去의回想은 우리의情意의世界에 감치한 哀愁의情緖를 喚起한다.「自己에게도 한번은 그러한 時節이있었었다」.「自己도 한번은 그러한것을차지한일이있었다」. 이리하여 喪失한옛것에의 追憶에잠길때에 過去는 幻影과같이 또다시 現在로돌아온다. 追憶만은 永遠히 나의것이다. 地上의 그어떠한權力이라도 우리의 情意의世界에 떠오르는옛것에의追憶만은 빼았을수없다. 그러나 幻影은 끝끝내 幻影에지내지안는다. 過去는 充全한意味에있어서 現在가아니다. 그러므로 哀愁의感情에는 歡喜와悲哀가 特異한形式으로 混合되는法이다. 自己만이 가질수있는追憶에대한歡喜와 그追憶이 결국 하나의幻影에不過한데서 울어나는 悲哀-이두낫의 矛盾되는感情이 特異하게 結合한것이 哀愁의情이다. 이리하여 美心理學上에서는 '哀愁'를 '憧憬'과함께 그方向을 달리하는 所謂 '混合感情'의 一種으로 본다(서인식 1940, 56-57).

반면에 '퇴폐'는 인간의 모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긍정 의식에서 출발한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여하고 수용하며 용서하거나 승인해버리려는 퇴폐는 그 자체로는 추한 것이라 보고 있다. 작가는 퇴폐가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만 미적 대상이 된다고 본다. 즉 퇴폐 의식은 일종의 아이러니에 해당하는데 정신적 갈망과 현실적 절망 사이에서 우러나는 정신적 고뇌가 비장미를 띠게 될 때 '퇴폐'는 미학적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서인식은 '애수'와 '퇴폐'가 당대의 정신 풍토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애수는 상실한 '것'에 대한 지향이지만 당대 풍토에서는 대다수가 그 대상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허무와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 같은 징후는 이어 퇴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13)]

哀愁가 喪失한것에대한 回顧意識에서 出發하는것이라면 頹廢는 人間의모든否定的인 象面에대한 肯定意識에서 出發하는것이다. … 頹廢는 그自體만을 뜨더놓고볼때에는 其實은 아름다운것이아니고 醜한것이다. 頹廢가 그極限에到達하면 우리는 嘔吐感까지 느끼게된다. 함에도 不拘하고 頹廢가 우리의 美的觀照의對象이 될수있는것은 人間의否定的인價値에대한肯定이 其實은 肯定的인價値에 대한 追求와渴望에 一種의「아이로니」로서의 意味를지니고있는境遇이다. … 頹廢意識에는 苛責과悔恨 自己嘲笑와 自己反撥等 가지가지의 精神的苦惱를 隨伴하게되며 이와같은 自己分裂의意識이 一定한程度를 넘어서게되면 憂鬱과 痛恨의情이「悽慘」이니「戰慄」이니하는 所謂 高度의 悲壯美까지 띄게 된다. … 精神的苦惱를隨伴하지안은「悲壯」이없는거와 같이「悲壯」에까지 高揚되지안는頹廢는 우리의魅力을 끄으는 美的對象이될수없다. 다시말하면 悲壯의感情을 자아낼수없는 單純한 頹廢는 아름다운것이 될수없다. 頹廢도 思慕와反撥 快感과不快가 特異하게 結合한 混合感情이다. … 現在는勿論이고 過去에도 投託할곳을갖지못한 人間은 自己의生活에대해서 倦怠와滅裂 더나아가서는 虛無와 恐怖를느끼지않을수없다. 虛無와不安의昂進은 頹廢的感情의길을 열게된다. 哀愁가 情意의表面을스치는 甘美한 漣波라면 苛責 痛恨等頹廢에 隨伴하는 一聯의感情은 情意의深部를 蕩亂하는 고치한狂瀾이다. … 하면 哀愁와頹廢가 現代에汎濫함은 무슨때문일까? 現代人은 思想과感情에있어서 現實과 妥協할수없는 距離를두고살수밖에없다면 그만이다. 現代와共生하고 共感하는人間에게있어서는 이러한 消極的感情 짜우러진性格이 생길리없다. 그意味에있어서 哀愁와頹廢는 現代에서不運을맛보는 낡은世代의心理로도 돌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時代에의情熱을잃은 낡은世代의 無力을表現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消極的風潮는 早晩間 克復되고 現代를領導할수있는 새로운精神的 標幟를 붓잡지 않으면않될 것이다. 그러나 現代의知性과 現實의矛盾이 現代의「事實」이 精神의 自由로운 飛翔을 容認하지않는데서 由來하는것이라면 問題는 單純치않다. 時代의 새로운轉換이 오기前에는 이땅에서 哀愁와頹廢의 汎濫을 解消할수없을 것이다. 時代의 轉換이있지않는限 現代의 底面을흘으고있는 페시미즘은 枯渴할리없을것이다(서인식 1940, 57-60).

글의 구성과 장식이 갖는 시대적 편차뿐만 아니라 애수와 퇴폐를 둘러싼 개념의 이해는 오늘의 번다(繁多)하고 무질서한 현상적 외형에 맞춰 겹쳐볼 때 쉽지가 않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간곡한 아쉬움과 아득한 지향을 담는 게 '애수'라지만

13) 예를 들어 대표적 상실의 하나인 '고향 *Heimat*'의 경우를 보면 식민 상태에서 그것은 이미 의미가 없었고 애수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

바꾸어 보면 새롭게 가져야 할 것들과 기막히도록 막강한 정보의 밀물 앞에서 굳이 고전적 사치를 만끽하려는 것은 앞 뒤 안 맞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날의 퇴폐가 구태여 오늘마저 퇴폐일 수는 없는 역사 편차라든지 기어이 이를 분리 이해하거나 교화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너무나 순수하여 오늘 그의 글 앞에서 쉽사리 손뗄 수 없는 감각적 충격이 크다는 점도 짚어야 할 문제[14]로 남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다시는 되돌아가지 못할 애틋한 시간 너머로 더욱 아련하고 진하게 메아리쳐 오는 울림의 색깔들이란 과연 무엇일까. 게다가 간절한 애수의 감정을 뛰어넘지도, 어느 누구의 가슴팍엔들 안기지도 못할 때 거짓처럼 다가서는 역사의 그늘이 되레 기쁘기만 한 까닭은 어디에 있는 걸까(김예림 2004).

그것이 민족의 슬픔이었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 헤아리게 된다. 저 아련한 그늘 밑에서 잠시라도 아주 잠시라도 잠들 수 있었던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행복할 수 있었다고. 애수의 순간을 이겨내며 마음 한구석 빈자리에 작은 퇴폐의 의자를 갖다 놓을 때 역사의 그림자는 그래도 달콤한 도피의 무대를 마련해 줄 수 있었다고. 애수는 쓰라렸지만 퇴폐는 달고 또 부드러웠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라고.

IV. 강점기 문학의 정치적 해석과 식민 정치의 문학적 이해

문학정치학의 틀을 통한 학제 분석이나 감점기 문학과 당대 정치의 깊은 틈새마저 메우려는 본격적인 작업은 아니었다. 더욱이 여기서 주목한 두 작가들만이 강점기 문학을 대변하는 것도 결코 아니었고 보면 글의 한계는 분명해진다. 다만 여기서 살펴본 문학 정치적 관심 대상과 그 몇 가지 새삼스런 발견물들은 30년대의 이해와 사회과학적 인식을 위해 고무적이었다.

이상과 서인식의 이념 지평은 서로 달랐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노선 차원에서의 문제였다기보다 문학적 상상과 표현 세계에서 그리고 이를 드러내는 사고의 원형

14) 육체를 육체로 소비하는 행위가 굳이 퇴폐로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퇴폐를 둘러싼 고전 개념을 경멸하는 무한 탐닉의 시대로 이승의 모습들이 퇴색 · 분화하고 있는 이유는 그럼 뭘까. 게다가 애수는 물론 퇴폐의 아름다움이 추한 세월 속에서 되살아나는 역사의 이변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으로 역사와 현실 인식의 방법 차이였다고 이해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둘'은 강점기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의 불안과 절망의 고통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결국 일본이라는 거대 권력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존심의 상실과 거기서 비롯되는 정치적 패배의 우울 마저 고스란히 끌어안고 살아내야만 했던 식민지 백성의 비애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슬픔의 극복과 삶의 신산(辛酸)함을 걷어내는 정치적 방법이란 게 따로 있었던 건 아니다. 그것은 일본 밖에 길이 없어 그리로 엎어지든지 아예 무한 동화(同化)의 꿈과 절대 안주의 모습을 갖추는 등 배반의 길로 접어드는 게 아니었다. 일본을 향한 두 문인의 일정한 '거리 두기'는 곧 독립의 폭력적 수단과 즉각적 자유의 보장을 담보하는 궁극의 초극 행위는 아니었다. 조선의 문학적 저항이 식민지 전복의 직접 도구가 되거나 정치적 해방의 매력적인 수단으로까지 승화하는 일은 강점기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혁명 무능'의 문화는 의식과 행동의 주눅을 양산했다. 그래도 기다릴 망정, 모든 걸 다 바치며 포기의 대가를 요구하는 역사의 비겁으로 '둘'은 탈바꿈하지 않았다. 무기력하였으되 내면의 늪 속으로 침잠했고 영구 식민의 두려움으로 치 떨었으되 새날의 문턱에서 역사의 비장미를 그리려 했던 '둘'은 무척이나 닮아가고 있었다. 세계를 꿈꾸며 동양을 해방하고 이어 제국의 지도를 녹여 없애려는 인문학적 호기(豪氣)도 척박한 현실 앞에선 느닷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가버린 날들보다 다가올 역사의 감동을 기다리는 문학의 자태는 진지했다. 바로 그 때 '퇴폐'는 '정조'의 반대말일 수 없었다. 그것은 도리어 기다림의 한 자세일 따름이었다.

참고문헌

공임순. 2005. "자기의 서벌턴화와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이념형: '전향'과 김남천의 소설." 『상허학보』 제14집. 71-102.

곽승미. 2003. 『한국문학과 근대성(1930년대 후반)』. 서울: 푸른사상.

구수경. 2003. 『1930년대 소설의 서사기법과 근대성』. 서울: 국학자료원.

김양선. 2003. 『1930년대 소설과 근대성의 지형학』. 서울: 소명.

김연희. 2001. "일제하 경성지역 카페의 도시문화적 특성."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

사학과 문학석사학위논문.
김영민. 1999.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서울: 소명.
김예림. 2004.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서울: 소명.
김윤식. 1990. 『한국근대문학양식논고』. 서울: 아세아문화사.
김인환 1984. "작품분석과 사회분석:.퇴폐문제." 『민족문화연구』 제18집. 1-51.
김재용 외. 2004.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서울: 역락.
김재용 · 이현식. 1998. 『안함광: 문학과 진실』. 서울: 박이정.
김재현. 2002. 『한국 사회철학의 수용과 전개』. 서울: 동녘.
김진희. 2002. "1930년대, 식민지 근대의 불모성과 여성: 오장환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7집. 217-242.
김진희. 2003. 『생명파 시의 모더니티』. 서울: 새미.
김치수 · 김병익 · 김현 · 김주연 지음. 1972.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서울: 민음사.
남진우. 2004. "〔시집 속의 시 한 편〕 이상의 '절벽'." 『조선일보』(1월 17일). D7.
류지용. 2002. "1920년대 소설에 나타난 가난과 죽음의 문제: 「감자」, 「화수분」, 「운수 좋은 날」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16집(6). 167-192.
문학과비평연구회. 1999. 『1930년대 문학과 근대체험』. 서울: 이회문화사.
박건용. 2005. "이상 문학에서의 '이상', '13' 및 '레몬'의 의미." 『한국학보』 제118집. 101-129.
박선애. 2004. 『1930년대 후반 문학과 신세대 작가』. 서울: 한국문화사.
박숙영. 2005. "근대문학과 카페." 『한국민족문화』 제25집. 39-64.
박윤우. 1999. 『한국현대시와 비판정신』. 서울: 국학자료원.
박종성. 1996. 『권력과 매춘: 억압의 음모와 도피의 흉계』. 서울: 인간사랑.
박종성. 1997. "강점기 조선정치의 문학적 이해: 염상섭의 『광분』과 관련하여." 『한국정치연구』 제7권. 319-348.
박종성. 2004. 『문학과 정치: 억압과 우울의 나날, 그리고 병든 근대』. 일산: 인간사랑.
박종홍. 2002. 『현대소설의 시각』. 서울: 국학자료원.
방민호. 2003. 『문명의 감각: 문학권력과 문학권력 비판을 넘어서』. 서울: 향연. 상허문학회. 1998. 『1930년대 후반문학의 근대성과 자기성찰』. 서울: 깊은샘.
서인식. 1938. "지성의 시대적 성격." 『조선일보』(7월 24일).
서인식. 1938. "지성의 시대적 성격." 『조선일보』(7월 30일).
서인식. 1939. 『역사와 문학』. 서울: 문장.
서인식. 1940. "애수와 퇴폐의 미." 『인문평론』 55-60.

서지영. 2003. "식민지 시대 카페 여급 연구: 여급 잡지 『女聲』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9권 3호. 31-73.

성대경 엮음. 2001.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 서울: 역사비평사.

손정수. 1996a. "일제말기 역사철학자들의 문학비평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현대문학전공) 문학석사학위논문.

손정수. 1996b. "1930년대 한국 문예비평에 나타난 리얼리즘 개념의 변모양상에 관한 고찰." 『외국문학』 제46호(봄). 225-243.

손정수. 1997. "1930년대 한국 문학비평에 나타난 모더니즘 개념의 내포에 관한 고찰." 『한국학보』 제23집 3호. 3114-3147.

손정수. 2002. "자율적 문학관의 기원: 1910년대 문학과 1920년대 문학의 차이에 대한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제20집. 332-350.

손정수. 2002. 『개념사로서의 한국근대비평사』. 서울: 역락.

신범순. 1998. 『한국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서울: 신구문화사.

안미영. 2000.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급 고찰: 이상의 여성관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집 · 기획: 여학생, 여급과 공공영역의 수사학. 289-311.

안함광. 1989. 『조선문학사』. 서울: 태동.

윤상인. 2005. "일본근대문학과 국가 이데올로기." 현길언 외(2005), 233-275.

이강언. 1986. "'지주회시'의 몇 가지 기법." 『한민족어문학』 제13집. 81-96.

이강언. 2003. 『1930년대 한국소설의 방향』. 서울: 홍익출판사.

이명찬. 2000. 『1930년대 한국시의 근대성』. 서울: 소명.

이상 저 · 윤형두 편. 1994. 『날개』. 서울: 범우사.

이상경. 1984. "강경애론: 30년대의 궁핍형소설고." 『한국학보』 제10집 4호. 4135-4154.

이은애. 1999. "1930년대 불안, 퇴폐문학 논의에 대한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집. 341-366.

이재복. 2004. 『한국문학과 몸의 시학』. 서울: 태학사.

이정옥. 2000. 『1930년대 한국 대중소설의 이해』. 서울: 국학자료원.

이화진. 2001. 『1930년대 후반기 소설 연구』. 서울: 박이정.

임영남. 1997. "오장환 시 연구: 시정신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청람어문학』 제18집. 281-308.

전상숙. 2004. 『일제시기 한국 사회주의 지식인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정해광. 2004. "일제 시기 '번역'에 의한 '동양'관의 성립에 관한 연구." 『시대와 철학』 제15집 1호. 77-109.

정희모. 1996. "〈지주회시〉에 대한 서사구조적 분석 연구." 『국어교육』 제92집. 433-454

조영복. 2003. "1930년대 신문 학예면과 문학 담론 형성의 의미: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술논총 2003』.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47-203.

조이담 · 박태원. 2005. 『구보씨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 서울: 바람구두.

조정래 외. 1999.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작가연구』. 서울: 평민사.

조진기. 1978. "1930년대 소설과 여급: 특히 현민 유진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5집. 155-166.

조창환. 1998. 『이육사』.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차승기. 2003. "'근대의 위기'와 시간 - 공간 정치학: 교토학파 역사철학자들과 서인식." 『한국근대문학연구』 제8호. 239-269.

차혜영. 2004. 『1930년대 한국문학의 모더니즘과 전통 연구』. 서울: 깊은샘.

채만묵. 2000. 『1930년대 한국 시문학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최승호. 2003. 『조지훈』. 서울: 새미.

한국문학연구회(편). 1993. 『1930년대 문학연구』. 서울: 평민사.

한민주. 2002. "근대 댄디들의 사랑과 성 문제: 이상과 김유정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24집. 35-49.

함동주. 1996. "중일전쟁과 미키 키요시(三木 淸)의 동아협동체론." 『동양사학연구』 제56집. 157-188.

함동주. 1999. "미키 철학과 동아협동체론." 『이화사학연구』 제25 · 26집. 107-126.

함석헌. 1983. 『함석헌전집 1: 뜻으로 본 한국역사』. 서울: 한길사.

현길언. 1996. "김남천 소설 연구: 전향의 논리와 지식인상." 『한국학논집』 제29집. 75-102.

현길언 외. 2005. 『문학과 정치이데올로기: 동북아시아 한 · 중 · 일 · 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와 문학에 대한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ABSTRACT

A Literary Understanding on Chosun Politics in Colonial Period II: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s of Lee Sang and Suh In-Sik

Chang Sung Park Seowon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spirit of the times (*Zeitgeist*) in the 1930s through some decadent works of literature especially written by Lee Sang and Suh In-Sik. The works of Lee had already gained recognition, but those of Suh were rarely discussed and handled randomly. But this is not to aim for social scientific reconfirmation about main arguments in the world of literature itself. Rather the goal was to concentrate on the political understanding for the topics of colonial regret, sedimentation, and intentional regress to the laziness in the light of works in the 30s' Lee.

Moreover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an alternative to how we can overcome sentimental and political limits of the above through writings of Suh in the late 30s. Discourses on the global way of thinking in modern world derived from the Kyoto School consist also of oriental liberation, independence of colony, and critics to Japanese imperialism. But this attractive paradigm could not transcend beyond the wall of militarism before and after Sino-Japanese War.

However, he had strictly grasped this way of thinking and pushed to the extremity until the new opening of the 40s. His trial was frustrated by continuous victory of Japan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Northeast Asian world order. But he had succeeded to overcome in negative political behavior, e.g. powerlessness, normlessness, alienation from others and also themselves.

The Beauty of Pathos and Decadence strongly stimulates political reconsideration of colonial age of the 30s as much as psychological masochism and sentimental compensation for

historical retrospect. Pathos gave any surviving power for disturbing existence in colonial motherland, decadence suggested an unprecedented clue for solace in political devastation and lamentable conditions of endurance. A certain prejudice around the concept of decadence(*fin de siècle*) had to be corrected into any connotative meaning of dysphemism. Decadence was a political excuse for displacement out of unbearable pathos, but in fact it was an attitude of endurance rather than an opposite of virginity. It was another expression of protest in colonial Chosun.